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3파전 정원오 vs 추격자 구도 뚜렷

박주민·정원오·전현희 본경선 진출
과반득표 없으면 결선투표 진행
‘명픽’ 정원오 선두 속 견제 집중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서울 시장 후보 본경선 진출자가 박주민·정원오·전현희(기호순) 후보로 압축됐다. 2주 후 진행될 경선을 앞두고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 1등과 2·3등의 전략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특히 ‘명픽’ 정원오 후보에 대한 견제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원회는 본경선에 박주민·정원오·전현희 후보가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이들간의 예비경선 결과다. 본경선은 내달 7~9일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치러진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인이 같은 달 17~19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길 만한 후보가 없어, 김민석 국무총리를 차출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아직 8개월이나 남았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빠르게는 지난해 11월부터 출마를 선언한 이들도 있었고, 서울 지역구 현역 의원들도 다수 도전했다. 예비경선을 치르기 전까지는 박홍근 현 기획예산처 장관과 서영교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른 바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 진출자가 박주민·정원오·전현희(기호순) 후보로 압축됐다. 왼쪽부터 박주민·정원오·전현희 후보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뉴시스

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정원오 당시 성동구청장을 칭찬하면서, 여당 서울시장 경선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다. 그러다 보니 5명으로 치른 예비경선을 앞두고는 토론 횟수 등으로 신경전도 일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개 칭찬으로 ‘명픽(이재명에게 선택받은)’이라는 별칭을 얻은 정 후보에 대한 견제가 경선전 내내 두드러졌다. 박주민·전현희 후보는 도이치모터스 후원 행사 참석, ‘성공버스’ 지적 등으로 예비경선 마지막 날까지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정원오 후보 선대위 박경미 대변인은 “검증이라는 이름의 저열한 네거티브를 멈춰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박 후보는 “검증은 당원의 권리이고 후보의 의무”라고 압박했다. 본경선을 앞두고는 정 후보에 대한 나머지 후보들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일단 박 후보의 경우 본경선이 끝나자마자 “닷새 안에 첫번째 정책토론을 시작하자”며 정책 검증 강화를 예고했다.

이제 예비경선이 끝났지만 세 후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예비경선에서는 득표율과 순위를 공개하진 않지만, 1등으로 예상되는 정원오 후보 측은 ‘과반 득표’를, 2·3등으로 예상되는 박주민·전현희 후보는 1등의 과반을 막고 2등을 확보해 결선투표를 노리는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세 후보는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김형남·김영배 후보를 언급하며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 구애하고 있다. 이들 두 후보의 지지가 어느 쪽으로 쏠릴지도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서예진 기자

svj@metroseoul.co.kr



metro

경기지사 카드 고갈 국힘 후보선정 ‘난항’

현역 중진들 출마 소극적
서울 오세훈 변수로 지연
인천 유정복 단수공천
김문수·이진숙 등 하마평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공관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6·3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둔 국민의힘이 수도권에 내보낼 후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장 후보는 유정복 현 시장을 단수공천했지만,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오세훈 시장의 후보 등록 여부때문에 시간을 2주 가량 흘러 보냈다. 그런데 이번엔 경기지사 후보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중량급 인사들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일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지사 후보와 관련,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최고의 카드”라며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다. 현재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의 양자대결 구도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전날엔 경기지사 공천을 두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전략공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철수·김은혜 의원에게 경기지사 출마를 권유해왔다. 하지만 두 의원 모두 일찌감치 출마에는 선을 그었다. 꾸준히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원유철 전 의원도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현역 중진들이 나서지 않자 이 위원장도 유승민 전 의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유전 의원은 개혁보수·합리적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있어, 중도 외연 확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

다. 다만 유 전 의원은 공개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거듭 밝힌 유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일각에선 경기지사를 지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거론된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역시 출마 의사를 밝힌 바는 없다. 또 지난해 대선과 전당대회를 연이어 패배한 상황이라 경기지사 후보로 등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권파들사이에선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차출설도 나온다. ‘투사’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전 위원장이 경기지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는다면 수도권 선거에서 어느정도 표를 모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SNS에 “(이 전 위원장은) 행정가감이라기보다는 정치인감”이라며 “(이 전 위원장의) 배짱이나 투쟁력이나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걸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투력에 비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서예진 기자



metro

중동 긴장 속 국회 “국민 안전 확보 총력”

외통위, 이란대사 비공개 면담
이란 “한국인 안전 협조” 약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주한 이란대사와 만나 미국과 이란 간 충돌 장기화에 따른 전쟁으로 인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국회 외통위원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란의 입장에서 이번 전쟁의 시작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오신 것 같다”며 “이란측에서 입은 인명 피해와 여러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지금 현재도 호르무즈 해협 내 26척의 우리 선박이 있고,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도 한 180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공개 면담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했다”며 “걸프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및 여야 간사들과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에 우리 국민이 1만3000명 가까이 있다. 국민들의 안전 문제를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한 이란대사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또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우리 대한민국도 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주한 이란대사는) 한국을 포함

해 국제 사회가 함께 노력해서 중동 지역에 다시 평화가 오도록 함께 노력해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다만 파병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미국, 특히 이스라엘로부터 주로 도발을 받고 있다고 주한 이란대사가 설명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여야, ‘조작기소 국조’ 두고 정면충돌

나경원 “추 변호인들이 국정조사”
박성준 “국회차원서 조사하는 것”

여야가 25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위법적 국정조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법한 국정조사”라며 “진실 규명을 위한 당연한 역할”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맞붙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반대’ 피켓을 들고 인사말부터 “불법적 국조 특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민주당 특위 위원장이 “인사 말만 하라”고 지시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광규택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

로 (국정조사가)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같은 당의 나경원 의원은 “이 특위는 이름부터 ‘조작기소’라고 답을 정해놓고 있다”며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정권에서 부역하며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라며 국정조사 진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에서 다 부역하면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라며 “국정조사는 견제받지 않은 검찰의 무도한 기획 수사와 표적 수사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나 싶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계신데, 검찰이 조작기소를 한 게 있다면 밝혀내야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죄 지우기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사건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